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1호 【루계 제2709호】

주체111(2022)년 7월 30일 토요일 음력 7월 2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행로에 백승의 만년초석으로 고여진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전화의 영웅세대가 혁명유산으로 물려준 투쟁정신과 승리전통을 혈맥으로 이어가며 주체혁명위업을 반드시 계승완성할 인민의 굳센 신념과 의지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수도 평양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앞에서 성대한 기념행사가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제국주의의 괴수인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파멸을 선고한 영웅조선의 존엄높은 모습이 불멸의 승리상으로 거연히 솟아 빛나는 승리전통교양의 대전당은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위대한 전승절을 영광과 계승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기념하게 되는 전체 참가자들의 환희와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기념행사의 례식이 진행되였다.

전투적기백으로 충만된 혁명군가에 맞추어 펼쳐지는 국방성중앙군악단의 각이한 대형변화와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의 능란하고 재치있는 무기기교가 전승절의 열광을 더해주었다.

이어 항공륙전병의 강하기교와 전투비행대들의 기교비행이 있었다.

고도 1, 200m 상공에서 락하한 항공륙전병이 조종락하산을 펼치고 위대한 전승의 년대를 안아온 조국수호자들에게 드리는 한송이의 눈부신 꽃으로 밤하늘을 누비였다.

승리의 7.27을 위하여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이 가정과 사랑, 꿈과 희망, 청춘과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다 바치면서 피로써 지키고 물려준 성스러운 공화국기발을 7월의 하늘가에 거폭으로 장엄하게 휘날리는 락하산병에게 참가자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남진의 돌격로를 제일먼저 열어놓은 빛나는 군공과 더불어 근위부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공군부대의 전투비행사들이 기교비행에 진입하였다.

장쾌한 폭음을 울리며 급강하하는 초저공비행과 불줄기를 뿜으며 솟구치는 수직급상승기교, 급라선상승비행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중전투비행동작들을 능숙히 수행하면서 전승절의 야공에 경축의 불보라, 경의의 축포탄들을 터치는 비행대들을 향해 참가자들은 경탄의 환성을 연방 터치였다.

위대한 수령, 불세출의 령장을 높이 모신 력사의 행운속에 조국해방전쟁의 1, 129일을 동서고금 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위훈으로 빛내이며 세기적인 전승신화를 창조하고 우리의 자랑찬 국호와 국기를 세계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떠올려놓았음을 경쾌한 선률과 박력있는 률동, 세련된 강하 및 비행기교로 펼친 례식은 기념행사의 서막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전대미문의 격난속에서도 세기의 정상에 주체조선을 강용히 떠올리시고 민족만대에 불멸할 위대한 승리사를 수놓아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르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과 리설주녀사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전승절을 맞는 전국의 전쟁로병들과 전체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받쳐들고 《우리의 국기》의 노래선률에 발맞추어 엄숙히 입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히 주악되는 속에 전승절의 밤하늘가에 성스러운 람홍색공화국기발이 서서히 게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전승절기념연설을 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우리 혁명이 대를 이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재부를 마련한 위대한 혁명세대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존경,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강렬히 맥동치고 선렬들의 고귀한 생명과 바꾼 가장 존엄높고 자주적인 강국, 인민의 나라를 세계만방에 영원토록 빛내여갈 엄숙한 선언으로 심장의 피를 끓게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연설은 전체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키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승세대와 그 후손들이 터치는 우렁찬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뒤흔들었다.

열광넘친 환호가 분출하는 속에 장쾌한 축포발사가 시작되였다.

(3면으로 계속)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다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연설

주체111(2022)년 7월 27일

존경하는 조국해방전쟁참전자동지들!

혁명의 로선배들과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고있는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과 일군들, 인민군군인들과 청년대학생, 혁명학원 학생동무들!

친애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체 인민들!

동지들!

크나큰 자부와 소중한 추억을 안고 또다시 맞는 승리의 7.27입니다.

세기적인 기적이 탄생한 그날로부터 2만 5, 203일의 기나긴 세월이 흘렀으나 전승의 환희와 영광이 바로 어제런듯 해마다 그러했듯 오늘의 우리의 감격과 자부는 끝이 없습니다.

동지들!

우리 조국에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위대한 전승절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나라사정도 어려운데다 얼마전에는 보건위기까지 겪은 판국에 오늘처럼 모든분들께서 이렇게 귀체를 보존해주셔서 고마운 마음 이를데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지들!

지금 이 시각 온 나라는 조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인민군렬사들과 혁명렬사들의 빛나는 삶을 추억하고 그들의 위대한 넋과 정신의 영생을 기원하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습니다.

수많은 유명무명의 참전렬사들이 이제는 우리곁에 없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로병동지들도 많지만 그들모두는 자기들이 피로, 목숨으로 지켜낸 조국의 품에 안겨있으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영광의 밤을 맞이하고있습니다.

나는 전쟁로병동지들이 건강장수하여 앞으로도 이같이 긍지스러운 로병대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우리 인민에게 세세년년 위대한 전승을 경축하는 특전과 무상의 영광을 안겨준 1950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초석을 마련해주고 오늘도 우리모두에게 정신적기둥으로 큰 힘이 되여주시는 온 나라 로병동지들과 전시공로자동지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쟁로병동지들의 가족들께와 로병동지들의 건강보전과 생활에 수고와 진정을 다 바치고있는 모든 고마운분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과 생사를 같이하며 고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린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지원군 로병동지들에게도 뜨거운 인사를 보내는바입니다.

동지들!

7월 27일은 우리 국가의 뜻깊고 경사로운 명절들가운데서 승리를 기념하는 류달리 긍지스러운 명절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인민에게 있어서나 자기 운명이 판가리되는 전쟁을 이긴것만큼 자랑스럽고 빛나는 영광과 영예는 없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령토와 인민을 사수하기 위한 생사존망의 조국방위전이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민주주의진영과 제국주의진영으로 대립된 두 극간의 처음으로 되는 격렬한 대결전이였습니다.

미제가 저들의 군대만이 아닌 방대한 추종국가군대를 조선전쟁에 투입하였다는 그 사실자체가 조선전쟁의 치렬성과 국제적성격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창건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가의 청소한 군대가 지구상의 제일 포악한 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 그 추종무리들을 상대로 싸운다는것은 너무도 중과부적이였습니다.

그러나 력사가 엄정히 기록한바와 같이 일거에 우리 령토를 병탄하고 자기의 지배권을 확대하려던 미제의 오만한 침략야망은 첫걸음부터 전대미문의 강력한 반격과 무서운 용감성에 부딪쳤으며 3년간의 고전끝에 결국은 정전협정의 조인으로써 여지없이 좌절되고야말았습니다.

조선전쟁에서 미제국주의와 그의 동맹국군사력은 심대한 패배를 당한것입니다.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사수하고 국가의 자주적발전환경을 지켜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세계제패전략실행을 저지시키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 인류평화를 수호한 여기에 우리 민족사와 세계전쟁사에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는 조국해방전쟁승리의 거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구의 동방일각에서 반제투쟁의 가장 첨예한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낸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야말로 침략자에 대한 수호자의 승리, 불의와 반동에 대한 정의와 진보의 승리이며 아무리 강대하고 우세한 침략자도 결사항전에 궐기한 군대와 인민을 당해낼수 없다는 철리를 실증한 인류사적인 승리입니다.

이 전설적인 기적을 탄생시킨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우리 로병동지들이며 동지들이 지금도 잊지 못해하는 수많은 전우들입니다.

영용한 전화의 조국방위자들이 포연탄우속에 육박해간 무수한 섬멸의 길들을 거쳐 승리라는 값비싼 영광이 탄생하게 되였고 진격의 선봉에 추켜들었던 공화국기는 영웅조선의 아들딸들의 값비싼 선혈로 더욱 짙게 물들어 영웅성과 승리와 정의의 상징으로, 반제투쟁의 불멸의 기치로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습니다.

동지들!

지금과 같이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생사존망의 준엄한 전쟁위기를 주저없이 맞받아나갔던 로병세대의 불굴의 기개가 더욱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누구나 잘 알고있는것처럼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청년들이였지만 조국을 지키는 전장에서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이였습니다.

일터와 학원에서 너무도 순박했던 사람들이 용약 군대에 탄원하여 미제국주의침략군대와 용감히 대적할수 있은것은 바로 자기 당, 자기 정권에 대한 믿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이 확고하고 새 나라의 주인, 새 생활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지가 강렬했기때문입니다.

우리 로병세대는 고마운 자기 제도와 자기의 고향과 일터, 자기 부모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또한 그 모든것을 빼앗으려는 원쑤에 대한 증오로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과 가슴저린 희생의 아픔을 억척스럽게 이겨냈으며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잔인하고 야수적인 침략자들에게 공포와 절망을 안기였습니다.

소박하고 평범했던 인간들이 자기의것을 지켜 죽음도 불사하고 나설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준것이 우리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였습니다.

이렇듯 피흘려 조국의 존엄과 명예, 령토와 자주권을 지켜내고도 한생토록 변함없고 사심없이, 견실하고 대바르게 조국을 위해 헌신하며 후손들에게 애국적삶의 본보기를 가르쳐준 여기에 우리 전쟁로병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참인간상, 고결한 풍모가 있습니다.

유명무명의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이 이룩한 불멸의 공훈을 떠나서는, 전승세대가 바쳐온 티없이 순결한 헌신적복무를 떠나서는 우리의 귀중한 사회주의제도와 오늘날 더욱 강대해지는 위대한 우리 국가를 생각할수 없습니다.

참으로 전쟁로병동지들은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억척불변한 우리 공화국의 주추를 다진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며 백절불굴하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전형들입니다.

동지들이 한생 발휘해온 충실성과 용감성, 애국심은 오늘 수천만 인민들속에 그대로 높뛰고있으며 1950년대 준엄한 포화속에서 탄생한 위대하고 우수한 그 특질을 자기의 유전성으로 가지였기에 우리 혁명은 세대를 이어서도 그 어떤 어려움속에서도 좌절도, 후퇴도 없이 자기 위업을 자기의 힘으로 굴함없이 개척해나가고있는것입니다.

동지들!

우리에게 있어서 전승의 날은 단순히 지나간 영웅시대의 항전사를 기념하고 돌이켜보는 경축의 날로, 회억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날은 가장 간고처절했던 년대에 가장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신 력사의 체현자, 증견자들앞에서 오늘 우리의 투쟁이 그 위대한 전통의 계승이라고 떳떳이 자부할수 있는가를 되새기며 신심과 용기를 가다듬고 열정과 투지를 돋움는 소중하고 의의있는 계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전승세대가 70년전에 떠올린 국가의 영광과 영예를 현시대의 높이에 맞게 더욱 빛내이고 다음대에로 굳세게 이어놓아야 할 중대한 력사적책임이 지워져있습니다.

전승세대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전화의 영웅정신을 억척같이 재워 국가방위력을 더욱 강하게 다지는것은 공화국의 국익수호와 자주적발전의 근본담보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부터 핵위협을 서슴없이 가해온 미국과 첨예하게 대치해온 우리 혁명의 지나온 력사적환경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국가의 자위력을 응당한 수준에 올려세울것을 요구하였으며 우리는 간고한 투쟁을 통해 이 절요한 력사적과업을 실현시켰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전후 근 70년간에 걸치는 치렬한 반미대결속에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자위를 위한 전략적잠재력을 강력히 비축한것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 못지 않는, 그보다 더 위대한 승리로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가장 엄중한 위해를 끼친 미국은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험한 적대행위를 그치지 않고있습니다.

미제는 《동맹》강화라는 미명하에 남조선당국을 추동질하여 자살적인 반공화국대결에로 떠미는 한편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추구하면서 근거없는 그 무슨 《위협설》을 집요하게 내돌리고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우리의 《위협설》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신빙성》있게 류포시켜놓은 다음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것이 바로 미제국주의의 체질화된 정책실행수법입니다.

미제는 늘 그러했듯이 최근에도 국제적으로 반공화국여론을 꾸준히 확산시키면서 우리 국가를 지역의 정세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으로, 《위험국가》로 묘사하고있습니다.

우리 무력의 일상적인 모든 행동들을 《도발》로, 《위협》으로 오도하고있는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뻐젓이 벌려놓고있는 이중적행태는 말그대로 강도적인것이며 이는 조미관계를 더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에로, 격돌상태로 몰아가고있습니다.

미제가 우리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과 여론을 조종하여 《악마화》해보려고 집념하고있는것은 세계평화의 교란자로서의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고 불법무도한 적대시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상투적인 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습니다.

미제의 오만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제와는 사상으로써, 무장으로써 끝까지 맞서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리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이 기회를 빌어 힘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욕과신에 빠져 광기를 부리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실행에 앞장서는 남조선보수《정권》과 호전광들에게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전승절경축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지금 이밤, 이 순간도 250여㎞의 전선 남쪽에서는 혐오스러운 대결광, 불량배들이 군사적광기에 열이 올라 우리 국가를 위협하는 각종 군사행동들을 벌려놓고있습니다.

올해에 집권한 남조선의 보수《정권》은 력대 그 어느 보수《정권》도 릉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정책과 사대매국행위에 매달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어가고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의 새 《정권》은 우리 정권과 군대를 다시금 《주적》으로 규정해놓고 동족대결상황을 대비한다는 쓸데없는 겁에 질려 악청을 돋구고 온갖 몹쓸짓, 부적절한 행동들을 일삼고있습니다.

이자들은 《힘에 의한 평화》와 《힘에 의한 안보》를 꺼리낌없이 제창하고있으며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고 허세를 부리였습니다.

남조선은 이 시각도 우리에 비한 저들 군사력의 렬세를 조금이나마 만회해보려고 무기개발 및 방위산업강화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미국의 핵전략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있으며 여러가지 명목의 전쟁연습들을 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들의 안보와 관련해 더욱더 빈번해진 남조선것들의 허세성발언들과 형형색색의 추태는 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저마끔 나서서 해대는 허세성발언들이 저들 국민들에게는 신뢰할만한 철통같은 안보태세와 선진군사력으로 인식되고 위안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는 잔뜩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는 몰골로만 보입니다.

남조선것들이 그 무슨 《한국형3축체계》라는 개념을 세워놓고 핵심전력을 키운다고 고아대고 천방지축 날뛰고있지만 남조선은 결단코 우리에 비한 군사적렬세를 숙명적인것으로 감수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 언제든 절대로 만회할수 없을것입니다.

저들이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는 절대병기를 보유하고있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행동을 운운한다는것은 가당치도 않은것이며 매우 위험한 자멸적인 행위입니다.

남조선《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수단과 방법에 의거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것이며 윤석열《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것입니다.

남조선의 보수《정권》은 시작부터 도가 훨씬 넘었다는것과 위험을 자초하는짓을 숙고해야 한다는것을 더 늦기 전에 자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전과 집권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있습니다.

또한 남조선군부깡패들이 최근에 내뱉는 분수없는 망발들도 듣고있으며 미국과 함께 하는 주목할만한 모든 군사적행동들을 놓침없이 살피고있습니다.

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수만은 없습니다.

계속하여 강도적인 론리로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도마우에 올라선 대통령, 가장 큰 위험앞에 로출된 《정권》이라는 손가락질을 피하려면 보다 숙고하고 입보다 머리를 더 굴려야 하며 때없이 우리를 걸고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것이 상책일것입니다.

동지들!

지금 우리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되여있으며 우리 국가의 핵전쟁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습니다.

로병동지들이 피흘려 지켜온 이 땅의 안전과 이 나라 제도와 주권은 더욱 억척같은 자위적방위력과 굳센 정신으로 철저히 담보되고있음을 확언합니다.

우리는 더욱 강해질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더 강해지는 철저한 군사력과 투철한 반제반미, 대남대적정신으로 우리 국가와 인민, 우리의 자주권을 철통같이 지켜내겠습니다.

적들의 발악적인 군비확장책동과 위험한 군사적기도들을 더욱 철저히 제압분쇄해야 할 우리 혁명의 정세는 우리 군사력의 더 빠른 변화를 필요로 제기하며 이 력사적과업의 책임적인 실현을 위하여 우리 당중앙은 최근에 국가방위력의 발전전략에 관한 임무를 책정하고 정확한 집행에로 령도하고있습니다.

전쟁은 힘과 힘의 랭혹한 충돌이지만 승전은 언제나 사랑이 열렬하고 신념이 강한 편에 있으며 이것은 첨단군사기술이 총발동되는 오늘의 전장에서도 달리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민군대는 강대성과 백승의 원천인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항상 주력하여 견결한 혁명정신과 무비의 용감성, 억센 투지로써 가공할 타격력을 발휘하는 세계제일의 강군으로 육성될것입니다.

전체 인민들은 전승세대처럼 일신상의 모든 고락을 조국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애국의 길에 충정을 다 바치는 정신으로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앞에 과감히 나서야 하며 불요불굴하는 의지로 사회주의건설에 분투하여야 할것입니다.

반제계급투쟁이자 자기자신의 운명수호전, 조국사수전임을 순간도 잊지 않고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맡은 초소와 일터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갈 때 우리의 창조와 건설은 가속화될것이며 적대세력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될것입니다.

전승세대의 영웅정신을 훌륭히 이어받아 조국의 백년대계를 위대한 승리로 이어놓아야 할 계승자, 교대자들은 우리 새세대들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수백만 청년들을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이 물려준 정신적바통을 견결히 이어나가는 열혈의 혁명가, 애국투사로 준비시키는데 언제나 선차성을 부여할것입니다.

모든 청년들은 전쟁마당에서 어떻게 용감해야 하고 자기의 국기를 어떻게 사수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로병세대들처럼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길에 피끓는 심장을 내대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청춘의 열정과 대중적영웅주의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 자기 시대를 또 하나의 새로운 영웅시대로 빛내여야 합니다.

전국의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과 일군들은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탁월한 전승령도업적과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깊이 심어주는 힘있는 선전자, 교양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모되여도 영웅적인 투쟁정신으로 하여 세대와 세대가 한피줄로 굳건히 이어지고 진함을 모르는 하나의 생명으로 일체를 이루는 바로 여기에 우리 국가, 우리 인민특유의 불가항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우리 공화국은 언제나 필승불패합니다.

가장 준엄한 년대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고 미래를 수호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공적은 무궁번영할 공화국과 더불어 영원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우리는 영웅적인 전승세대의 넋과 정신을 이어받아 더욱 힘차게, 더욱 강인하게 투쟁함으로써 동지들이 사수한 이 땅에 강대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락원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바이지만 로병동지들이 앉아계시기만 해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커다란 힘과 고무로 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류의하여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면서 부디 귀하신 몸들을 보중하여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지들!

위대한 우리의 7.27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 자기의 힘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준엄한 전쟁의 포화를 헤치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승리전통으로 빛나는 7.27의 기적을 안아온 위대한 년대의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렬사묘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쟁의 세기》로 불리우는 20세기의 한복판에서 전승세대가 피로써 전취한 조국수호, 전민항전의 승리는 우리 민족사와 세계혁명사에 전무후무한 영웅신화이고 신생조선의 영용성과 강대성의 기틀을 다져놓은 력사적사변으로서 이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제일자산, 필승불패의 든든한 밑뿌리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이 강대해질수록 값비싼 희생과 불멸의 위훈으로 자주강국의 초석을 굳건히 다진 위대한 혁명세대의 영웅정신과 투쟁기풍을 순간도 잊지 말고 빛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당, 전민, 전군이 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만장약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기적적승리와 더불어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항일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부강조국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한 전승세대에 드리는 축하의 꽃다발인양 무수한 불꽃들이 령롱한 빛을 뿌리고 오색찬연한 불보라가 불멸의 승리상과 영웅전사들의 군상들을 눈부시게 밝히였다.

위대한 사상의 힘, 단결의 힘으로 굴함없이 나아가는 신념의 길우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철리를 더욱 뜨겁게 새겨주며 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이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앞당겨올 강렬한 지향과 의지가 어린 전승찬가들의 선률을 타고 축포탄들이 연해연방 터져올랐다.

전화의 영웅전사들에게 드리는 어머니조국과 후손들의 숭고한 경의를 담아 밤하늘에 공화국기발과 영웅메달이 특색있게 새겨지고 《위대한 전승 7.27 만세!》라는 글발이 눈부시게 형상되였다.

위대한 전승절을 기념하는 특색있는 공연이 시작되였다.

공연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승리의 년대들에 투쟁과 신념의 노래로 높이 울린 명곡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전쟁초기부터 전인민적인 전선탄원가로, 원쑤격멸의 진군가로 높이 울려퍼졌던 첫 전시가요 《조국보위의 노래》와 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결사항전의 노래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미제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전승이라는 미증유의 사변을 이루어낸 조국방위자들의 전설적위훈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사상과 제도, 승리의 고귀한 전통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해나가며 성스러운 조국을 더더욱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제일강국으로 력사우에 떠올릴 의지가 차넘치는 종목들에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한전호에서 우리 인민과 어깨겯고 싸운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군공을 《중국인민지원군전가》에 담아 노래하였다.

우리 혁명의 1세, 2세들이 불비속에서 소중히 그려본 부국강병을 위하여, 이 세상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넘볼수 없는 사회주의조선의 절대적국위를 위하여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영원히 강하고 영원히 승리해갈 각오를 백배해준 공연은 로동당시대 전승찬가들인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우리의 7.27》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년대의 승리전통과 투쟁기풍이 우리 인민과 새세대들을 백절불굴의 애국투사들로 키우는 훌륭한 자양분으로, 새로운 승리와 기적을 끝없이 탄생시키는 진함없는 원천으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며 걸음걸음 따라서는 전쟁로병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8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7월 28일 위대한 전승절을 뜻깊게 기념한 제8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앞에서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쟁로병들을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억척불변하는 우리 공화국의 주추를 다진 가장 영웅적인 세대, 백절불굴하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시며 모두가 로당익장하여 한생을 긍지높이 빛내여가도록 크나큰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촬영장소에 차넘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에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7.27의 승리전통과 영웅정신을 세기를 이어 빛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떨쳐가시는 불세출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열광넘친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류례없이 가렬처절하였던 혁명전쟁에서 피어린 군공으로써 미제국주의의 날강도적인 침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고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해나가야 할 조국수호와 혁명보위, 계급성전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으며 백발을 머리에 인 오늘에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기둥이 되여주는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에게 다시금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존엄높은 사회주의조선의 귀중한 모든것은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불멸의 공적과 하나로 잇닿아있다고 하시면서 전승세대의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가 후손들의 피와 살이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영양소로 되고있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필승불패의 원천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승세대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땅, 한생토록 애국의 성실한 자욱을 새겨온 조국강토를 전체 인민이 부럼없는 복락을 향유하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려나가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격정의 눈물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전쟁로병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 모두가 건강장수하기를 바라시며 오래도록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7월 28일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동의 위업을 위해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고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린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우의탑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사에 력력히 아로새겨진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빛나는 전투적위훈과 공적은 불멸할것이며 피로써 맺어지고 력사의 온갖 격난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조중친선은 사회주의위업의 줄기찬 전진과 더불어 대를 이어 계승발전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7월 28일 제8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만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오매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승리전통교양의 대전당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한생의 가장 큰 소원을 성취하게 된 강사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중앙홀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우리 조국의 영원한 전승절을 성대히 기념하는 승리자들의 대축전에 불러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성지를 지켜선 남다른 긍지와 자부를 안고 사상의 전초병, 근위병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있는 강사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은 당의 전승령도사를 대중에게 체득시키는 직접적담당자, 핵심들이라고 하시면서 높은 정치리론수준과 능란한 강의술, 해박한 지식으로 강의를 통속적이고 생동하게, 진실하고 감명깊게 하여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을 혁명의 1세, 2세들처럼 당과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견결한 혁명가들로 억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승리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과 일군들에 대한 우리 당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사적지관리사업과 교양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하늘같은 믿음을 인생의 가장 큰 재부로 간직하고 위대한 년대의 영웅적투쟁정신과 기풍을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새세대들의 심장마다에 영원한 넋으로, 투쟁과 전진의 무기로 깊이 심어주는 힘있는 선전자, 교양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기자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사상 류례없는 격난속에서 승리의 신심드높이 용기백배하여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속에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7.27은 주체조선의 위대한 전승의 날, 환희의 명절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공화국에 있어서 령토와 인민을 사수하기 위한 생사존망의 조국방위전이였으며 공화국의 자주권을 건드리는 침략자들에게는 참패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 진리를 력사의 갈피속에 뚜렷이 새겨넣은 전쟁이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에 저들의 방대한 무력과 추종국가군대들까지 총동원하였으며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그러나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인 조선전쟁에서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공화국은 세계전쟁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삶의 보금자리인 자기 조국, 자기 제도를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안고 떨쳐일어나 침략자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공세를 막아내고 자기의 령토와 자주권을 피로써 사수해낸것은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의 힘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 력사적장거이다.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고 인류전쟁사에 빛날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였으며 투철한 조국수호정신과 영원한 승리전통을 마련하였다는 여기에 7.27이 가지는 중대하고 심원한 의미가 있다.

공화국에서 7월 27일은 국가의 뜻깊고 경사로운 명절들가운데서 승리를 기념하는 류달리 긍지스러운 명절로 되고있다.

이날을 맞으며 로병대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기념행사들을 해마다 성대히 진행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단순히 지나간 영웅시대의 항전사를 기념하고 돌이켜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전승세대가 창조한 조국수호정신과 불굴의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 사회주의건설에 구현함으로써 막아나서는 모든 도전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을 위한 길에서 보다 큰 전진과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69년이 지나간 오늘 공화국은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 자존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범죄적인 적대시압살정책은 조선전쟁시기나 지금이나 추호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하여 지구상 가장 격렬한 조미대결전은 세기를 이어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이 세기적인 대결전에서 조선은 어제도 승리하고 오늘도 승리하고있으며 래일에도 승리할것이다. 7.27은 영원한 조선의 승리이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공화국에 오늘의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절세위인, 천출명장이 계시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조미대결의 년대들마다에서 무비의 담력과 신묘한 지략으로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신화를 창조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담력과 배짱에서나,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풍모에서나 꼭같으신 백두령장, 명장중의 명장이시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는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승리와 기적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자그마한 자비도 모르시는분, 결심이 단호하고 타격에서 무자비하며 한번 결심하시면 반드시 해내고야마는 탁월한 령장, 불세출의 위인을 모시여 조선의 전승절은 영원한 승리의 날로 빛나고있는것이다.

7.27의 밤하늘가에 아름답게 터져오르는 축포를 바라보며 공화국인민들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커다란 긍지와 함께 전승세대가 창조한 조국수호정신과 투쟁기풍을 영원히 이어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창조된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으로 무장하고 령도자와 일심일체를 이룬 인민과 군대가 있어 조선은 더욱 강하고 승리의 력사도 영원하다. 조국수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근본핵으로 하는 숭고한 혁명정신이며 조국을 자기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한치한치의 땅을 목숨바쳐 지켜내려는 열렬한 조국애이며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 백절불굴의 의지로 충만된 견결한 투쟁정신이다.

세상에 이보다 강한 정신이 있겠는가.

전쟁은 힘과 힘의 랭혹한 충돌이지만 승전은 언제나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이 열렬하고 신념이 강한 편에 있으며 이것은 첨단기술이 총발동되는 오늘의 전장에서도 달리 될수 없다.

정신력의 강자가 싸움에서도 이기는 법이다.

세계적인 강군으로 자라난 공화국군대의 강대성과 백승의 원천의 하나는 정치사상적우월성이다. 공화국군대는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으로 여기고 수령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뛰여들어 반드시 승리와 기적을 창조해내는 가장 혁명적이고 영웅적인 군대이다. 공화국군대의 이러한 모습이자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루고 령도자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는 전체 인민의 모습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의것을 지켜 죽음도 불사하고 나선 이런 강의한 군대와 인민이 있어 이 땅에서는 승리의 7.27이 영원히 흐르고있는것이다.

7.27이 영원한 조선의 승리로 되는것은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에 의하여 담보되기때문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은 보총으로 원자탄을 휘두르는 미국과 맞서싸워 끝끝내 전승의 신화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오늘 공화국은 그 어떤 도전도 제압, 통제하고 그 어떤 강적도 압승할수 있는 절대적힘을 지니고있다. 다시말하여 공화국의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되여있으며 공화국의 핵전쟁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에서 하신 연설에서 적들의 발악적인 군비확장책동과 위험한 군사적기도들을 더욱 철저히 제압분쇄해야 할 우리 혁명의 정세는 우리 군사력의 더 빠른 변화를 필요로 제기하며 이 력사적과업의 책임적인 실현을 위하여 우리 당중앙은 최근에 국가방위력의 발전전략에 관한 임무를 책정하고 정확한 집행에로 령도하고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불세출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고 전승세대의 넋과 투쟁정신을 이어 그이의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군대와 인민이 있으며 그 어떤 침략자도 단호히 쳐갈길수 있는 무진막강한 군력이 있어 조선의 승리는 영원한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령도의 천재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이어가도록 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조된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을 온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심어주시여 그 정신과 승리전통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와 기적만을 창조하게 하시는 절세위인,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공화국군대와 인민이 지난 세기 50년대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세계전쟁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출한 기적을 창조한 위대한 승리로서 가장 값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조선전쟁은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였다.

공화국은 그때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였고 반면에 미국은 수많은 전쟁에서 한번도 져본적이 없다는 제국주의우두머리였다. 거기에다 미국은 저들에게 추종하는 수많은 국가무력들까지 끌어들였다.

하지만 전쟁의 결말은 어떻게 되였는가.

조선은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전승의 위대한 신화를 창조하였다. 그 밑바탕에는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조국수호정신이 놓여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불의의 무력침공을 반공격으로 쳐물리치면서 금강을 도하하고 불비쏟아지는 락동강을 건늘 때 인민군전사들의 가슴속에 고동친것은 수령님 찾아주신 귀중한 내 조국을 한목숨바쳐 지켜내려는 결사의 각오와 불굴의 투쟁정신이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참다운 삶과 행복을 안겨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이였다. 하기에 인민군용사들은 고마운 제도와 자기의 고향, 자기 부모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그 모든것을 빼앗으려는 원쑤에 대한 증오로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과 가슴저린 희생의 아픔을 억척스럽게 이겨냈으며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잔인하고 야수적인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이 자랑스러운 전승세대들과 그들이 창조한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이 있어 공화국은 전후에도 겹쌓이는 도전과 난관들을 뚫고 헤치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바로 이 위대한 정신, 승리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위대한 전승절을 해마다 의의있고 뜻깊게 기념하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전승세대들의 넋과 투쟁정신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고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시기 위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로, 전승세대의 위훈을 길이 전하는 불멸의 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세워주시였으며 전쟁로병들을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신 귀중한 스승》, 《천리마의 기상으로 자주강국의 터전을 다진 주인공》, 《숭고한 정신과 넋을 후대들에게 심어준 위대한 스승》, 《항상 공경하고 귀감으로 모시는 혁명의 로선배》, 《전설적인 영웅시대의 주인공들》, 《고마운 은인들이며 참다운 스승들》로 내세워주시며 로병대회들에 몸소 참석하시여 축하연설도 해주시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얼마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돐을 맞으며 국가적인 성대한 기념행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시고 몸소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가장 준엄한 년대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고 미래를 수호한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공적은 무궁번영할 공화국과 더불어 영원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승세대의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넋을 따라배워 이 땅에 강대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락원을 기어이 일떠세울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진정 전승세대의 위대한 투쟁정신과 기풍을 새세대들의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삼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위훈과 공적은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며 공화국을 더더욱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제일강국으로 력사우에 떠올리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게 될것이다.

김명일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뭉개버리며 (2)

《보복》에는 보복으로

1968년 1월 23일 해상순찰임무를 수행하던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은 공화국령해에 침입하여 비법적인 정탐활동을 감행하던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였다.

알려진것처럼 《푸에블로》호는 수많은 나라들의 연해를 항행하면서 현대적인 전파탐지기구와 각종 감시기구를 리용하여 정탐활동을 해왔다. 그러다가 공화국령해에서 덜미를 잡힌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면피한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서 나포》되였다느니, 간첩선이 아니라 해양관측선이라느니 하는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행동하였다.

당시 미국대통령은 새벽에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2~3일사이에 핵추진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를 비롯한 수많은 항공모함들과 순양함, 구축함들을 조선동해에 들이밀었다.

이와 함께 수만명의 해군예비역군인들의 퇴역을 중지시키고 미국본토의 공군부대들에 경계태세를 명령하였으며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에 300대이상의 군용기를 집결시키였다. 그리고 오끼나와로부터 분사식전투기 2개 대대와 수많은 해군함정, 대공포들을 남조선에 새로 끌어들이였다. 미국의 지령에 따라 남조선괴뢰군도 전쟁전야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은 《푸에블로》호와 그 승무원들을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 《북조선의 한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푸에블로〉호사건으로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을 위협공갈하였다.

미국의 광란적인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다시 터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조선을 지켜보고있었다.

바로 이때 조선에서 울려나온 폭탄과도 같은 선언은 세계를 뒤흔들어놓았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미제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천명하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대로 미제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하기 위한 반미대결전에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그 어떤 위협과 압력에도 주저없이 단호히 맞서나가는 공화국인민과 군대의 도도한 기상앞에서 미국은 무릎을 꿇고 저들의 죄행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푸에블로》호사건이 공화국의 승리로 결속되였을 때 세계언론들과 진보적인사들은 《어떻게 작은 나라 조선이 거대한 악마인 미국의 뺨을 후려갈겼는가? 어떻게 이 나라 사람들이 〈푸에블로〉호를 붙잡고 그 거만한 미국의 코대를 꺾어놓았는가? 어떻게 조선이 미국의 침략에 대처할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질수 있게 되였는가? 그것은 경모하는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있기때문이다.》고 격찬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도 《초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작은 나라에 한대 얻어맞고 코피를 흘리고있다.》고 개탄하면서 《미국은 무능력과 자기의 취약성을 드러내놓았다.》고 비명을 올렸고 AP통신 역시 《자기의 전능을 자랑하는 미국이 무능력을 드러내놓고있다.》고 전하였다.

본사기자 리연선

《네가지 잘못》으로 선사받은 참패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한 전쟁이였다.》

이것은 지난 세기 조선전쟁에서 참패하고 정전협정에 서명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가 한 말인 동시에 미국의 비명소리이다.

조국해방전쟁당시 공화국은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국가였지만 미국은 110여차례의 크고작은 전쟁을 겪으면서 단 한번도 패전을 몰랐다는 악의 제국이였다.

조선전쟁은 그야말로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였다.

하지만 손을 들고 항복한것은 미국이였다.

잘못한 네가지 선택

❖《잘못 고른 시간》

40여년간의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망국노의 설음과 죽음의 고역을 겪은 공화국인민은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존엄과 자주권은 목숨과도 바꿀수 없다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새기였다.

해방된 땅에서의 꿈같은 5년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고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참된 삶이고 창창한 미래의 약속이였다.

이것을 짓밟으려고 미국이 침략의 불을 지른 1950년 6월 25일은 분명 《잘못 고른 시간》이였다.

❖《잘못 고른 장소》

《불의타격》과 《속전속결》, 《크리스마스총공세》, 《하기 및 추기공세》, 《신공세》… 참으로 미국은 공화국을 삼키려고 별의별 전쟁수법을 다 썼다.

그러나 《아침은 해주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던 호언장담은 전쟁개시 3일만에 서울을 내주고 얼마후에는 락동강 남쪽의 좁은 울안에 갇힌 승냥이의 비명소리로 화하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월미도의 3일간, 장진호반의 악몽, 1211고지의 《상심령》, 《함정골》… 그야말로 전조선땅이 미군에게는 무덤이였고 《지옥》으로 되였다.

미국이 조선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것은 분명 장소를 잘못 고른 우둔한자들의 잘못한 행동이였다.

❖《잘못 고른 적》

미국은 조선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였다.》고 흰소리를 쳤다. 공화국의 인민군대가 《세계최강》을 떠드는 미군의 땅크만 보아도 줄행랑을 놓으리라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었다.

공화국인민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살이를 했던 그 조선사람들이 아니였다.

조국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인민, 참다운 삶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는 영웅적인 인민이였다.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해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서슴없이 바치는 이 세상 가장 강용한 인민이였다.

그런 인민, 그런 군대를 미국이 어찌 당할수 있었으랴.

❖《잘못한 전쟁》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이 가장 잘못한것은 공화국의 인민과 군대를 이끄시는 최고령수가 어떤분이신가를 몰랐다는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일제를 쳐부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다. 그이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령활무쌍한 전략전술,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미국은 력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멸망의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오만무례했던 미국은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공화국에 의해 사상 처음으로 당해본 참패에 얼마나 얼혼이 나갔던지 정전협정조인식에 들고왔던 저들의 기발마저 그대로 놓아둔채 황황히 도망쳐버렸으며 퇴색될대로 퇴색된 그 기발은 공화국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에 대한 증견자로 오늘도 머리를 숙이고있다.

미국은 명백히 잘못한 전쟁을 하였고 공화국은 위대한 승리의 7.27을 이룩하였다.

반복되는 《네가지 잘못》

현자는 앞선자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오늘까지도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종국적멸망의 길로 줄달음치는 어리석은 망동이 아닐수 없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대참패를 당한 이후에도 북침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려왔다.

그러나 차례진것은 무엇인가.

1960년대의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 1990년대와 2000년대의 핵대결 등 미국의 력대 집권자들이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발광하였지만 종당에는 피묻은 성조기에 패배의 락인을 련이어 찍으며 조선전쟁의 패잔병들과 한바리에 실려 력사의 뒤전에 밀려날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그토록 총력을 기울여왔던 공화국과의 대결에서 왜 단 한번도 이길수 없었는가.

그것은 조선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기때문이다.

오늘 공화국은 또 한분의 절세위인,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고 절대적힘을 지닌 초강대국이다.

세계제국주의무력을 총동원하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원자탄까지 휘두르며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조선을 압살하려다가 참패를 당했던 미국이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고 최강의 힘, 불패의 위용을 떨치는 공화국을 어째보려고 하는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이제라도 지난 세기 조선전쟁에서 패하고 항복서에 서명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가 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한 전쟁이였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선택을 바로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승리의 7.27은 공화국의 영원한 전통이고 과학이며 진리이다.

정은혁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오는 8월 4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25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온 겨레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자주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통일사상과 로선,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고귀한 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준 불멸의 조국통일총서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90년대에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에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엄혹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었다.

온 겨레가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흠모하여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얼마 앞두고 천만뜻밖에도 우리곁을 떠나신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만회할수 없는 최대의 상실이고 아픔이였다.

그러나 당시 내외반통일세력은 초보적인 인륜도덕마저 다 줴버리고 민족대국상을 당하여 피눈물속에 몸부림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댔을뿐 아니라 그 무슨 《붕괴설》까지 공공연히 떠들어대며 사면팔방에서 반공화국압살의 광풍을 몰아왔다.

이 준엄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하더라도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과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주체86(1997)년 8월 4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하시고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심으로써 우리 겨레에게 통일운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구현해야 할 위력한 투쟁강령을 안겨주시였다.

또한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로작에는 민족자주원칙을 견지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문제,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고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방법으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할데 대한 문제 그리고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마련하여주심으로써 온 겨레는 뚜렷한 목표와 방향,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조국통일로작은 내용의 심오성과 과학성, 그 실현방도의 합리성과 공명정대성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크나큰 용기를 새롭게 안겨주는 애국애족의 홰불》, 《조국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통일대강》으로 지지환영하면서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확고한 통일의지를 안으시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경모심을 금치 못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로작을 대서특필하였으며 정계,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은 지지담화를 발표하는 등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해나섰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계승하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성취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며 온 겨레가 거족적인 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불멸의 고무적기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여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활력있게 전개해나갈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주신데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을 일관하게 틀어쥐시고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7(1998)년 4월 18일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보내주신것을 비롯하여 조국통일의 방략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며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용단에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게 된것은 새 세기 자주통일의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으며 온 겨레가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뜻이였고 민족의 사활적요구인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해 총매진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통일위업은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반통일세력을 압도하며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드팀없이 계승발전시키시여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주시고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자주통일성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조국통일유훈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민족사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당한 로선과 방침,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5(2016)년 5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시고 그 실현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신것은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을 안겨준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전략전술로 내외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세계정치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민족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수 있는 억척의 담보를 더욱 굳건히 마련하여주시였다.

지금 온 겨레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에서 통일조국의 휘황한 래일을 보고있으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오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다.

신일국

통일을 불러

태권도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한 애국지사 (7)

2002년 1월.

뜻밖에도 최홍희선생은 카나다에서 불치의 병(위암)진단을 받게 되였다.

—조국으로 가야 한다. 치료를 받아도 조국에서 받고 수술을 해도 조국에서 하고 죽어도 조국땅에 묻혀야 한다.—

선생은 자기의 이러한 뜻을 조국에 알려왔다.

최홍희선생의 건강상태와 그의 결심에 대해 보고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최홍희총재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를 하루속히 조국에 데려와서 유능한 치료진으로 병치료를 하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최홍희선생의 생명을 연장할수 있는 최선의 구급대책도 강구할것을 해당 일군들에게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에 대한 치료정형을 매일같이 알아보시고 산삼을 비롯하여 병치료에 필요한 약들과 많은 과일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홍희선생이 미국에서 진행하는 태권도고단자들의 강습에 꼭 참가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갈 때에는 우리의 의사와 해당 일군의 방조를 받도록 하라고 치료방조조치도 취해주시였다.

태권도강습을 마친 후 선생은 곧 카나다에 있는 집으로 떠났다.

집에 도착하여 태권도와 관련한 문건들과 자료들 그리고 자기의 사품들을 깨끗이 정리한 선생은 가족들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조국이 없다면 카나다에 묻힐번 했는데… 우리에게 조국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나는 고마운 내 조국에 가서 묻히고싶다. …》

최홍희선생이 조국에 오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생이 카나다에서 조국까지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것을 념려하시여 해당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최홍희선생이 조국에 도착한 후 선생에 대한 치료가 밤낮없이 진행되였다.

그러나 선생의 병세는 날로 더욱 악화되였다.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감한 최홍희선생은 국제태권도련맹의 핵심성원들을 조국으로, 자신의 곁으로 불렀다.

선생은 마지막혼신의 힘을 가다듬어 태권도는 조선이 없으면 절대로 안된다, 그 모국인 조선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 북남태권도를 꼭 통합하여 조국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마지막부탁을 남겼다.

그날은 2002년 6월 15일이였다.

최홍희선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에 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수 없으시여 친히 화환을 그의 령전에 보내시였다.

그러시고는 해당 일군들에게 최홍희총재는 우리 수령님께 태권도를 가지고 조국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수십년동안 해외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태권도활동을 열정적으로 해오다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것을 알고는 조국의 품에 안겨 생을 마쳤다고, 최홍희총재는 결국 인생의 마무리를 잘한셈이라고, 아까운 사람인데 사망하였다고, 최홍희총재의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최홍희총재는 죽어서도 조국의 품, 우리 당의 품에 안기려고 결심하였기때문에 자기 유품들까지 모두다 평양에 가져오도록 하였다고 하시면서 최홍희총재의 유품들을 태권도전당에 잘 전시해놓으면 될것이라고, 최홍희총재는 간단한 사람이 아니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홍희선생의 80평생을 더욱 빛내여주고싶으신 뜨거운 마음에서 신문과 방송을 통해 부고를 내보내고 선생의 장례식을 잘하며 가족들을 잘 돌보아줄데 대하여 세심히 이르시였다.

최홍희선생과 영결하는 부고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최홍희선생은 오래동안 남조선과 해외에서 곡절많은 길을 걸어오다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에 안겨 비로소 애국의 길을 찾고 태권도로 나라의 통일위업에 이바지해온 애국지사이며 이름있는 활동가이다. …》

애국지사, 이름있는 활동가!

최홍희선생은 태권도로 통일에 보탬을 주고 민족의 넋을 떨쳐보려던 인생의 꿈도 실현하였고 민족사의 갈피에 죽어서도 영생하는 이름을 새기게 되였다.

선생의 파란많은 인생길은 후대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떠난 개인의 운명이란 있을수 없으며 위인의 품속에서만 인간의 재능도 꽃피고 빛날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위험천만한 망동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공화국을 겨냥한 북침전쟁연습소동에 더욱 광란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미국립훈련쎈터에서 미특수전부대와 함께 《참수작전》훈련을 벌린 남조선군사깡패들은 련이어 경기도 오산공군기지에서 《한》미화학공격대응훈련에 광분하였다. 이러한 속에 다음달에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를 강행하려 하고있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이러한 진쟁불장난이야말로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 아닐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은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 동족대결정책의 직접적발로이다.

세기와 년대를 넘어 조선반도에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있다.

《공산주의의 위협》을 운운하며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은 트루맨행정부로부터 현 미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이어져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기본목표는 례외없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정권전복》이였다.

이에 따라 작성된것이 5단계로 수립된 《5027》북침전면전쟁계획이였고 《외과수술식타격》을 기본으로 한 《5029》작전계획이였으며 《북급변사태》발생을 노린 《5030》전쟁계획이였다.

최근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은 《장기, 단기 대북군사대비태세조정》에 대해 떠들며 새로운 북침작전계획을 작성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북침기도와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해마다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들이 강도높게 감행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려온 모든 전쟁불장난과 마찬가지로 오는 8월에 강행하려는 《을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 역시 새로운 북침작전계획에 따라 감행되는 북침전쟁시연회이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은 력대 그 어느 보수《정권》도 릉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대결정책과 사대매국행위에 매달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어가고있다.

역적패당은 공화국정권과 군대를 다시금 《주적》으로 규정해놓고 《힘에 의한 평화》와 《힘에 의한 안보》를 꺼리낌없이 제창하면서 무기개발 및 방위산업강화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미국의 핵전략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으며 여러가지 명목의 전쟁연습들을 확대해나가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책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분별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은 지난 시기 내들었던 《년례적훈련》, 《방어적훈련》이라는 기만적인 간판마저 떼버리고 모든 합동군사연습들이 공화국의 《지도부제거》와 《제도전복》을 목표로 하고있다는것을 꺼리낌없이 공개해대고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군사연습들이 벌어지고있지만 특정국가의 지도부를 《제거》하고 제도를 《전복》하는것을 주요목표로 삼고 작전무력들을 총투입하고있는것은 유독 미국과 남조선대결광들이 벌리는 북침합동군사연습뿐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리는 합동군사연습은 위험천만한 전면핵전쟁도발행위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감행하는 북침합동군사연습은 규모의 방대성과 훈련의 강도, 실행방식의 무모성과 포악성에 있어서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세계최대규모의 전면핵전쟁연습이다.

미국은 남조선호전광들과의 합동군사연습에 남조선강점 미군과 하와이에 있는 미태평양군사령부의 주요지휘조들을 비롯하여 조선반도유사시에 투입하게 되여있는 모든 무력들을 들이밀고있으며 지어 미본토와 유럽에 있는 주요통합군사령부들과 일본 그리고 나토무력까지 동원하고있다.

지금도 미국은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남조선수역에 두차례나 기동전개시켰으며 핵잠수함들, 《B—1B》, 《B—52》전략폭격기들과 《F—22랩터》, 《F—35》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배비해놓고 북침전쟁불장난을 벌리고있다.

최근 미국이 아무러한 주저와 꺼리낌도 없이 핵전쟁장비들을 투입한 사실과 그 타격력에 대해 뻐젓이 공개하고있는것은 대조선침략책동이 실행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공화국은 이미 어떤 세력이든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것이라는데 대해 천명하였다.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이 절대적힘, 불가항력을 지닌 공화국을 상대로 계속 무모한 군사적도전을 일삼는다면 죄많은 력사가 어떻게 끝장나고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자들의 추악한 잔명이 어떻게 종말을 고하는가를 제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무덤으로 가게 될것이다.

박호남

《반북대결반대, 평화를 위한 련대를》

—남조선에서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결성, 행동계획발표—

보도에 의하면 6.15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비롯한 남조선의 9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1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해방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전세계적인 신랭전의 도래와 조선반도의 긴장과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의 대결정책, 《한》미일협력을 반대하는 행동을 조직함으로써 여론을 환기하고 지속적인 평화, 통일운동의 동력을 구축할 목적으로 8.15자주평화통일대회를 오는 8월 13일 오후 3시 남대문, 서울역린근에서 개최하고 룡산 《대통령집무실》까지 2.7㎞구간을 행진하는 8.15자주평화통일대행진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6.15남측위원회 각 지역본부, 민화협, 겨레하나, 민주로총, 《한국로총》, 《한국진보련대》를 비롯한 90여개 시민사회단체 약 1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앞서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남조선각지 70여곳과 세계 주요도시 30여곳에서 평화행동을 벌리고 해내외 각계 단체련명으로 된 국제평화선언을 8월 10일경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정부》의 《한》미동맹일변도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이 조선반도에 신랭전질서를 불러들이고있고 인디아태평양전략의 핵심과제라고 불리우는 《한미일3각동맹》은 반북대결을 가속화한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일본군성노예범죄와 조선인강제징용만행을 비롯한 과거죄악청산을 외면하고 평화헌법마저 페기하려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력사의 정의를 저버리고 민족에게 재앙을 들씌우는 범죄라고 하면서 《한》미일군사협력을 반대배격하였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각 단체대표들은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이 8월에 강행하려 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짓부시고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해 싸워나가자고 해내외의 온 겨레에게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다른 각계층 단체들도 8.15자주평화통일대회에 련대하여 동시행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시민평화포럼》은 8월 14일 각지 주민들과 함께 적대와 전쟁을 멈추고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는 림진각평화행동을 개최하려 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도 오는 8월 14일 일본군성노예범죄를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나비문화제를 진행하며 이에 앞서 8월 10일에는 세계련대집회형식으로 수요시위를 개최하려 하고있다.

일본에서는 6.15일본지역위원회와 일본의 각계층 시민단체들이 미국과 남조선의 대사관, 령사관앞에서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반대배격하는 항의행동을 진행하려 하고있다.

본사기자

《방위백서》인가, 재침백서인가

남을 걸고 제 리속을 채우는데서는 일본을 따를 나라가 없다.

얼마전 일본이 발간한 《2022년 방위백서》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섬나라족속들은 백서에 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활동》이 일본의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친》다고 쪼아박고 방위력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력설하였다.

특히 이른바 《반격능력》을 포함하여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수상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반격능력》보유를 합리화해나섰다.

일본이 공화국을 걸고 군사력강화에 매달리려는것은 그 무엇으로도 합리화될수 없는 침략적, 범죄적망동이다.

공화국의 국방력강화조치들은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수호를 위한 당당한 자주권행사이며 자위적조치이다. 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일본에서 오고있다.

패망에 대한 앙갚음을 해보려고 재침의 독이발을 부득부득 갈고있는 일본의 군국주의화책동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섬나라는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의 경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일본이 소위 《방위백서》에서 운운하는 《반격능력》보유론도 그전부터 떠들어오던 《적기지공격능력》보유론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선제공격》능력강화론이다.

패망후 지금까지 력대 일본의 집권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의 방패막이로 리용해왔다.

또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재침책동에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장치들을 제거해버리기 위해 모지름을 써왔다.

지난 4월에도 《자민당》은 대내외적으로 《적기지공격능력》이라는 표현이 《선제공격》을 의미한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자 문구를 《반격능력》으로 슬쩍 바꾸어놓고 정부에 그 보유를 제안해나섰으며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방위비도 국내총생산액의 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일본이 《반격능력》을 보유하겠다는것은 지난 기간 표방해오던 《전수방위》라는 간판을 완전히 줴버리고 공격전략, 재침전략으로 방향전환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다.

이것은 일본이 《제국시대》의 모습을 되찾고 공화국과 아시아나라들을 향해 재침의 화살을 날리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이 이번 《방위백서》에 우리 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또다시 쪼아박은것이다.

령토강탈, 재침에 환장한자들만이 할수 있는짓이다.

일본속담에 거짓말하다가 도적질한다는 말이 있다.

일본이 우리 나라의 고유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생억지를 쓰면서 거짓말을 일삼는것은 어느때든 그것을 강탈하자는 흉심에서이다.

공화국을 걸고들며 위험천만한 《선제공격》능력강화를 부르짖고 독도강탈기도를 또다시 드러내보인 일본의 《방위백서》야말로 재침백서, 침략백서이다.

섬나라족속들은 오판하고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불행은 제스스로 초래한 불행이라는 말처럼 섬나라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이 가져올것은 종국적파멸뿐이다.

남주현

민족성을 모독하는 매국배족행위

얼마전 남조선의 그 무슨 《한미동맹친선협회》의 인간추물들이 워싱톤에 찾아가 미국대통령에게 조선이름을 섬겨바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성을 배씨로 하고 본관은 남조선강점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으로 하였다는데 정말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누구의 승인을 받고 감히 우리 배씨문중의 성씨를 외세의 우두머리에게 진상하는 망동짓을 하였는가.

조선사람들은 옛적부터 자기의 성과 본을 귀중히 여겨왔으며 가문에서 배출한 이름있는 문인, 무인, 기인들의 이름과 공적을 족보에 기록하고 전하면서 후손들이 자랑하고 본받도록 하였다.

특히 나라와 겨레를 지켜 한목숨바쳐 싸운 애국충신들은 민족뿐 아니라 같은 성씨문중의 영웅으로, 성인으로 떠받들리였으며 민족을 등진 반역자, 배신자, 변절자들은 가문의 치욕으로 락인찍히고 족보에서 지워졌다.

이러한 전통과 력사는 나라를 사랑하고 침략자를 증오하며 목숨을 버릴지언정 외세와 끝까지 싸우는 강의한 우리 겨레의 민족성의 바탕으로 되여왔다.

우리 배씨문중에도 불의와 침략에 맞서 용감히 싸운 선조들이 많다.

더구나 조선사람들은 자기 성씨를 함부로 도용하거나 제멋대로 타인에게 붙여주지 않았다.

그런데 친미사대에 쩌든 인간쓰레기들이 우리 민족에게 분렬의 고통과 치욕을 강요하고 전쟁의 재난을 들씌운 침략국의 괴수에게 배씨성을 함부로 피여올렸으니 우리 배씨문중과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이자들은 후세에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성》으로 지어 헌상했다는데 정말 윤석열역적패당은 력대 친미독재자들도 혀를 찰 골수 종미주구들이다.

지금의 미행정부가 출범해서 한짓이란 대조선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북침전쟁연습을 재개하였으며 첨단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들이밀어 조선반도정세를 무한정 격화시킨것뿐이다.

그런데 상전의 이러한 범죄적망동을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미화하면서 《지성》이라는 이름을 피여올렸으니 이 얼마나 추악한 행태인가.

윤석열역적패당은 해괴한 찬미넉두리와 더러운 행적으로 희세의 종미매국노들임을 민족과 력사앞에 더욱 낱낱이 드러내고있다.

이따위 인간오물들이 남조선에서 살판치고있는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수치이고 비극이다.

민심을 저버리고 대세에 역행하며 조선사람의 존엄이 어린 성과 이름까지 침략자에게 피여올리는 윤석열역적패당에게 차례질것은 민족의 저주이고 비참한 말로뿐이다.

평양시 대성구역 룡흥3동 배정기

《시작하자마자 끝난것같다》

윤석열역도가 집권후 불과 2개월만에 지지률이 통치위기수준인 30%초입까지 떨어져 궁지에 몰리고있는데 대하여 외신들도 널리 보도하고있다.

외신들은 이미 예상하였던 일이 터졌다고 하면서 윤석열역도의 무지와 몽매, 부패에 대해 부각시키고있다.

어느 한 외신은 30%대로 떨어진 윤석열의 지지률은 통치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낮은것이라고 하면서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정치적 밀월》기간이 끝난것같다, 지지률이 30%아래로 하락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은 상태라고 야유하였다.

외신은 윤석열의 경험부족과 태도불손, 실수, 다양한 정치적, 개인적문제들때문에 지지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지지기반도 빠르게 약화되였다, 출근길에 략식기자회견을 벌렸지만 낮은 지지률을 무시하는 등의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검찰출신들을 고위직에 등용하여 《검찰공화국》이라는 내부의 비난과 반발을 불러왔다고 하면서 녀편네가 여러 공식행사에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닌것과 《국민의힘》안에서 당대표의 성추문의혹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한것도 역도의 지지률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한데 대해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남조선전문가들도 윤석열이 절제되지 않은 발언들을 하고 모든 문제를 이전 《정부》탓으로 돌리는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만한것으로 비쳐지고있다는 분석들을 내놓고있는데 대해서도 전하였다.

미국언론들은 윤석열역도의 《대통령》자격에 의문을 표시하였으며 섬나라것들은 윤석열역도의 낮은 지지률을 조소하면서 역도가 자기들과의 관계개선을 강력히 희망하고있지만 쉽지 않을것이다, 그의 《한》일관계개선시도가 남조선내부의 반일감정을 자극할 경우 더 큰 위기에 직면할것이라고 야유하였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남조선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조소와 야유,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는 윤석열역도이다.

외신들도 보도한바와 같이 검찰출신심복들을 위주로 집권층을 꾸린 윤석열역도의 독선적인 인사문제가 각계층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역도는 《이전 정부에서는 민변들이 아예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였고 략식기자회견이라는데서는 자기의 낮은 지지률에 대한 질문에 개의치 않는다고 하면서 극히 오만하게 놀아댔다.

더우기 자기의 처 김건희가 《대통령실》에 애완용개를 끌고다니며 사진을 찍어 외부에 공개하는 등 온갖 해괴한 짓거리를 해도 응당한 행동인듯이 비호했다.

지어 김건희의 오만무도하고 상식이하의 행동들이 박근혜《정권》시기의 최순실《국정》롱단과 다를바없다고 하는 보수내부의 비난에 대해서도 들은척도 하지 않았다.

경제를 살리라고 하니 친재벌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돌보라고 하니 세계적경제위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망발하는 역도이다.

오히려 이전 《정부》때문에 모든 문제가 산생되였다고 떠들며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여있다.

그러니 해내외의 비난과 조소, 야유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는것이다.

내부에서 저주받고 외부에서 조소받는 신세가 된 윤석열역도, 그야말로 산 정치송장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러니 임기를 시작한지 두달만에 끝난것같다는 소리를 들을수밖에.

장형범

만필 쫓겨나게 된 《룡와대》주인

남조선에 《룡와대》라는게 생겨났습니다.

룡산의 청와대라고 해서 《룡와대》라고 했다나요.

예? 인왕산아래에 있던 청와대를 룡산으로 옮겼는가구요?

아닙니다. 이전 청와대주인이 이사를 가고 윤 뭐라고 하는자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였는데 그 윤씨는 어떤 미신쟁이가 청와대는 풍수지리적으로 오래전부터 북악산이 풍기는 암운과 지심에서 솟구치는 불길한 기운때문에 이전 주인들의 운명이 기구했다고 한 말을 듣고 아예 들어가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룡산에 있는 어떤 집을 강제로 타고앉아 여기가 룡산의 청와대다 하고 선포하고는 《룡와대》라고 했다던지.

웃기는것은 이사한지 석달도 못되여 벌써부터 쫓겨날 신세가 되였다는것입니다.

왜냐구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룡와대》에 이사한 윤씨는 새집들이를 한다고 돈도 흥청망청 쓰고 《다른 마을(미국)》에서 《축하》해주려온 《손님》에게 고맙다고 굽석거리며 그가 좋아하는 시까지 읊었다고도 합니다.

마을사람들과 친숙해지고 문화수준도 괜찮다는것을 보여주자던노릇이 더 골치거리로 되였습니다.

온 마을사람들을 다 청한것도 아니고 풋낯이나 안다는것들만 끌어들인데다 그 《손님》이라는 작자도 마을사람들에게는 영 반갑지 않은자였으니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차 윤씨에 대해 알게 되면서 머리를 저었습니다.

인사문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라고 하는것이 상례인데 윤씨는 《검찰》인지 푸주간인지 하는데를 다닐 때 낯을 익혔던자들만 아는체하며 《끼리끼리 인사》, 《동아리인사》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을사람들이 좋아할리 만무하지요.

그때부터 윤씨를 주시해보기 시작했는데 인품이나 인격은 말할것도 없고 취미며 취향이며 하는 말, 노는 행동이 모두 꼴불견이였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대로 윤씨는 생김새부터가 《악어상》이여서 딱 미움받기 좋은 상인데다 지적수준은 그의 녀편네가 《말을 잘 듣는 바보》 혹은 《멍청이》라고 부르는것이면 알만할것입니다.

기질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미신쟁이 녀편네의 말은 제외하고) 우직한이고 품성은 아무데서나 다리를 쩍 벌리고있어 《쩍벌남》, 사람들앞에 나서면 머리를 좌우로 왔다갔다하여 《도리도리윤》, 의자고 침대고 구두발을 쭉 뻗치고 올려놓아 《쭉뻗남》이라고 《룡와대》에 이사하기 전부터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수지타산은 또 얼마나 밝은지 사람들을 더 많이 부려먹기 위해 이미전부터 《주120시간로동》을 고안해냈는가 하면 그들의 먹는 문제는 《돈이 없으면 불량식품이라도》, 이렇게 해결했다고 합니다.

취미는 등산인데 《신적폐청산》이라는 산에 자주 오르고 좋아하는 악기는 《종북》, 좋아하는 악보는 《공안기관장악》, 《언론장악》 같은것입니다.

윤씨가 《신적폐청산》에 올라 이런 악보에 맞추어 《종북》을 두드리면 《정치보복》이라는 탈놀이가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소란해 못살겠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동맹》, 《혈맹》 하는 맹꽁이타령인데 요즘은 《전략동맹》, 《중추동맹》이라는것을 새로 배웠다고 합니다.

윤씨가 맹꽁이타령을 부를 때마다 마을사람들이 《미친놈》 하고 욕을 하는것을 봐선 소리가 영 음치이거나 내용이 한심하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윤씨는 개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개들과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참 《쩍벌》버릇을 고치기 위해 개와 훈련도 했다나 봅니다.

윤씨는 《공정》한것을 좋아하는데 례를 들어 내가 아는 사람이면 자격이 없어도 쓸수 있다, 녀편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것은 응당하다는 식입니다.

《상식》도 많이 알고있는데 마을이 잘살자면 《재벌》이라는 벌을 많이 키워야 한다, 《손로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것》이기때문에 모자라는 일손은 《다른 마을》에서 보충하면 된다. 등등…

불행하게도 윤씨는 피해망상증이라는 불치의 병을 앓고있습니다.

《이웃집》이 항상 우리를 넘겨다보고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웃집》에서 우리에게 웃음을 지어도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 《이웃집》이 잘되는것은 우리가 안되는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웃집》을 미워하며 온갖 못된짓을 하다나니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몰라 항상 근심고민에 싸여있으며 그것이 피해망상증이라는 병으로 화하여 제 그림자 보고도 화들짝 놀라군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품이나 인격이 우직하고 아둔하고 바보스러운데다 보느니 눈 딱 감기는 망동이고 듣느니 동에 닿지 않는 소리들이여서 사람들은 윤씨에게 《생둥이》, 《풋내기》, 《무지몽매한》, 《철딱서니없는 망나니》같은 별명만 잔뜩 붙여놓았습니다.

그래도 윤씨는 그런데는 개의치 않는다는것입니다.

《윤씨는 물러가라.》, 《룡와대에서 당장 나가라.》

사람들은 윤씨가 동네망신을 깨깨 시킨다며 내쫓자고 욱욱합니다.

예로부터 만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병이 없어도 절로 죽는다고 민심의 비난과 저주를 받고있는 윤씨의 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룡산의 까마귀가 《룡와대》상공에서 윤씨의 비명소리를 대신하듯 그악스레 울어대고있습니다.

《까욱, 까욱》

김정혁

《국민의 짐》에게 옛 시를 보내며

요즘 남조선보수정당인 《국민의힘》내에서 당대표자리를 노리고 권력야심가들이 개싸움질에 열을 올리고있다.

성상납이라는 부패혐의로 당대표가 당원권정지라는 중징계처벌을 받은것을 계기로 당권쟁탈전이 더욱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윤석열역도의 심복중의 심복으로, 핵심관계자로 통하는자와 원내대표가 조기전당대회개최문제를 놓고 저들끼리 맞붙었다.

선자는 당사무총장자리를 노리며 당대표와 선을 긋는 대회개최를 주장하고 후자는 당대표직무대행을 맡은 기회에 당권을 장악해보려고 한사코 대회개최를 반대해나선것이다.

당대회개최문제를 둘러싸고 각 계파들간에 그리고 계파내에서 갑론을박의 아귀다툼과 살기등등한 도전이 계속되는 속에 때를 놓칠세라 당대표후보감들이라는 이전 원내대표와 정치철새 안철수까지 싸움판에 뛰여들었다.

가뜩이나 첨예한 당권암투에서 저마끔 한몫 톡톡히 보려고 기염을 내뿜는 이들로 하여 세력과시, 세력경쟁의 열기는 한층 거세여간다.

여기에 다음기 당권경쟁에서 《핵심적역할을 할 인물》들의 《다양한 조합》을 뜻하는 《안장》이니, 《김장》이니, 《철권》이니 하는 괴상망측한 신조어가 새로 등장하여 정치적리해관계에 따라 리합집산으로 분주한 《국민의힘》의 현실을 날날이 보여주고있다.

이런 속에 당원권정지라는 중징계로 당대표직을 박탈당한 리준석과 그의 지지세력은 중징계처분을 두고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악마구리 끓듯 혼잡을 일으키고있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터지기직전의 불도가니이다.

그놈이 그놈이라 싸움질의 능수인 윤석열역도를 꼭 닮아 《윤핵관(윤석열의 핵심관계자)》이요, 《진윤(진짜 친윤)》이요 하는 패거리들이 앞장서 판을 치고있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제개비네 집안이 되였다.

최근에는 리준석을 당대표자리에서 밀어낸것을 깨고소해하는 윤석열의 손전화통보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보수패당내부의 모순과 갈등은 더욱더 격화되고있다.

《대통령》선거전에는 《대통령》후보자리를 놓고 개싸움을 벌리고 지금은 《혁신》의 미명하에 당권을 놓고 저들끼리 골받이하는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선거때마다 민생을 위해 《노예처럼 뛰겠다.》고 침방울을 튕기던것들이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민생이야 녹아나든말든 권력쟁탈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으니 남조선민심이 《국민의힘》을 가리켜 《국민의 짐》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꼴사나운 개싸움을 지켜보느라니 옛 시의 몇구절이 절로 떠오른다.

개 한마리 푸주간 고기
한칼 도적하여
옆으로 돌아 날쌔게 빠져
나오자
으렁으르렁소리 어지럽게
들려오는데
뭇개들이 어울려 서로
먹겠다 다투네
진흙탕속에 어울려 싸우
거니
잃느냐 얻느냐 오직 그
한가지뿐
얻는대도 주림을 구원치
못하려니
잃는대서 무엇 그리 슬픈
것이 있으랴
…
본시 빼앗지 않고는 만족치
않는것이
동물의 성품이라 욕심은
다함이 없는 법
어찌하여 그네들 조그만
리욕에 눈 어두워
마른 밥덩이로 덕을 잃는고

오래전의 시구절이지만 마치 권력이라는 고기덩이를 놓고 제편끼리 으르렁대는 보수패당을 위해 쓴것같다는 생각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단평 친일사대매국노들의 물증외교

얼마전 남조선외교부 장관이라는자가 일본을 행각하였다.

물론 섬나라것들과의 관계개선문제때문이였다.

눈 딱 감기는것은 명색이 장관이라는자가 노복처럼 굽신거리며 남조선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달라고 섬나라족속들에게 구걸해나선것이다.

남조선내 일본전범기업자산현금화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협의회를 2차례나 벌려놓았다느니, 박근혜집권시기 합의된 《한일위안부합의》도 존중한다느니 하는 역스러운 넉두리를 늘어놓으며…

결과는 섬나라것들의 코대만 높여주었다는데 있다.

일본수상은 상대가 말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라는 식으로 고자세를 취하다가 쌍방사이의 왕복외교는 솔직한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 앞으로 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무미건조한 소리만 하고 등을 돌리였다고 한다.

일본외상이라는자는 한수 더 떠서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을 꺼내들며 강제징용피해자배상과 관련한 일본전범기업들의 자산현금화조치를 철회하고 《한일위안부합의》를 존중한다고 말만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리행에 나서라고 로골적인 압박을 들이대였다.

그쯤하면 섬나라것들의 뻔뻔스러움과 날강도적본색을 알고도 남겠지만 윤석열역도를 대신하여 렬도에 기신기신 찾아간 외교부 장관이라는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를 운운하며 일본이 남조선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해달라고 또 구걸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섬나라것들은 들은척도 안하고 무시해버렸다고 한다.

결국 섬나라것들의 멸시와 랭대속에 매국적인 《한일협정》과 《한일위안부합의》를 리행하라는 사무라이후예들의 독촉과 압박만 받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였으니 동냥도 못받고 쪽박만 깨버린셈이다.

가관은 윤석열역적패당이 이번 일본행각을 놓고 대화가 재개된것자체가 큰 성과이라고 자화자찬한것이다.

랭대와 멸시, 굴욕적인 과업만 받고 오고도 《성과》라고 떠드는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쓸개빠진 인간추물, 천하에 둘도 없는 사대매국노들이 아닐수 없다.

참으로 남조선외교부 장관이라는자의 이번 일본행각은 윤석열역적패당의 사대매국적정체를 다시한번 여실히 드러낸 또 하나의 계기이다.

리광철

담상 후회속에 자기 손을 보며

손이 노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실감하고있을것이다.

하다면 그러한 손을 자르고싶다고 토로하는 인간의 웨침은 참으로 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게 한다.

《윤석열에게 투표하였던 손가락을 자르고싶다!》

이것은 바로 윤석열역적패당의 현란한 《대선》공약에 속아 투표하였던 남조선 각계층이 터치는 서리찬 목소리이다.

손가락을 자르고싶다고 하는 절규에 역도에 대한 민심의 실망과 분노의 크기가 능히 헤아려지고 암흑속에 빠져들어 망연자실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오는듯싶다.

각 분야에서 경륜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등용하겠다고 요란스레 광고하던 공약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손때묻은 주구들로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파쑈독재체제를 부활시킨 윤석열역도의 배신행위는 이 파쑈광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손을 환멸속에 바라보게 하고있다.

도탄에 빠진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과 정치보복에 매달리며 남조선을 완전파국의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역도의 행태 또한 남조선 각계층으로 하여금 천하불망나니에게 지지표를 던진 자기들의 손을 후회속에 마주하게 하고있다.

윤석열역도가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긴장격화와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것을 보면서, 천년숙적 섬나라족속들에게 아부굴종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서슴없이 팔아먹는것을 보면서 희세의 호전광, 추악한 사매매국노에게 투표한 손을 보며 울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였고 절망은 분노로 떠는 자기들의 손을 다시 보게 하고있다.

윤석열에게 투표하였던 손가락을 자르고싶다!

이 말은 기만과 위선에 속아 불행과 고통을 스스로 몰아온 자기들의 손, 운명의 선택을 잘못한 어제날과 단호히 결별하고 억센 손, 억센 주먹으로 위선자, 배신자들을 징벌하고 참다운 삶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오늘의 남조선민심을 담고있다.

력사의 심판대는 바야흐로 만고역적 윤석열을 부르고있다.

민심의 억센 손에 뒤덜미를 잡혀 만신창이 되여 준엄한 심판장에 끌려나올 역적의 가련한 몰골이 똑똑히 보인다.

리철준

평양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고구려시기의 대동강나무다리

우리는 림흥동주변에서 또 다른 고구려시기의 력사유적을 찾아볼수 있었다.

그것은 대성구역 청오동과 사동구역 휴암동사이에 있는 대동강가에 위치한 대동강고구려나무다리터였다.

대동강고구려나무다리터

이에 대해 동행한 림금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은 《이 나무다리는 413년에 건설한것으로서 길이 375m, 너비 9m나 되는 당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대단히 길고 웅장한것이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나무다리터로 우리를 안내하며 그는 이 유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당시 안학궁에서 나라의 정사를 보던 고구려의 왕과 봉건관료들이 이 다리를 통하여 동명왕릉에 찾아가 제사도 지내고 락랑벌사냥터에서 사냥경기도 벌리군 하였다고 한다.

현재 보존유적으로 등록된 이 다리는 밤나무각재를 다리기둥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놓고 그우에 다시 동서로 가로놓았으며 그 다음 넓고 두꺼운 판자를 우에 깔아 건설하였었다고 한다.

물속에 잠기는 다리기둥은 둘레에 각재로 귀틀을 짜 세우고 그안에 돌을 채워넣어 든든하게 하였고 다리우에는 란간을 세워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다닐수 있게 하였으며 다리입구에는 각재로 큰 등불대를 만들고 거기에 불을 켜놓아 밤에도 낮처럼 불편없이 다니게 하였었다.

림금석실장은 《고구려사람들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규모가 큰 다리를 건설하면서도 못이나 꺾쇠같은 쇠붙이를 하나도 쓰지 않고 크고작은 모든 이음새들을 사개물림하는 방법으로 든든하게 련결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물에 항상 잠기는 다리구조들에서는 쇠붙이를 쓰지 않고 사개물림하는 방법이 우월하다는것을 알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줍니다.》라고 설명해주었다.

선조들의 건축유산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는 대동강고구려나무다리터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는 고구려시기의 높은 건축술과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선조들의 창조정신을 다시금 엿볼수 있었다.

장숙영

대동강고구려나무다리의 상상화

2021년 10대최우수교원

명천군 명천고급중학교 교원 조영옥

깨끗한 교육자적량심과 자질을 지니고 후대교육사업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있는 명천군 명천고급중학교 교원 조영옥의 참된 교육자적풍모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다.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그가 자체로 마련하여 교육사업에 리용한 화학실험시약과 기구는 130여종에 500여점에 달한다.

온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 학교들에서는 여러가지 시약과 기구들이 부족하여 실험실습교육에서 지장을 받고있었다.

수업시간에 리트머스시험종이가 없어 산과 염기의 성질에 대한 지식을 설명으로 대치할 때 그는 자기를 바라보던 학생들의 맑은 눈동자앞에서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게 되였다.

그는 도서관의 참고도서와 인민대학습당에서 받은 자료를 탐독하는 과정에 리트머스시험종이를 만드는 색소를 지중해연안에서 자라는 이끼에서 추출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교수사업과 교편물제작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며 연구를 거듭한 그는 이 땅의 어디서나 피는 꽃들에서 색소를 얻을수 있다는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쥐였다.

그는 산발을 오르내리며 100여종이 넘는 꽃들을 수집하여 실험을 거듭하였다.

류산, 염산을 비롯한 중독성있는 시약들을 다루는 실험과정에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였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으며 마침내 리트머스시험종이를 자체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애써 마련한 80여종에 수백점의 시약과 기구들을 삼지연시와 피해지역에 새로 일떠선 학교들에도 보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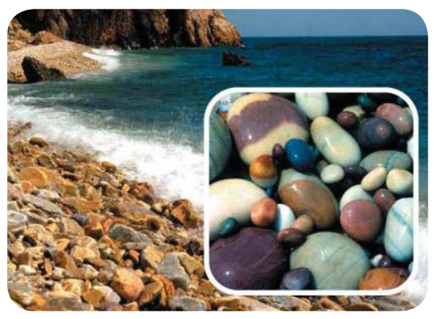
그가 내놓은 새 교수방법들과 실험기구, 시약들을 만든 경험은 전국의 학교들에 널리 일반화되였다.

30여년을 묵묵히 교육사업에 헌신해온 나날에 그는 10월8일모범교수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리원구석



리원구석은 리원군 라흥로동자구앞바다기슭에 분포되여있다.

포항천하구의 량쪽에는 바다기슭을 따라 중원생대 직현군층의 굳은 규암층으로 된 벼랑이 있다.

이 벼랑기슭을 물결이 씻어깎아냄으로써 해식대지가 형성되였다.

처음에는 덩어리로 풍화되여 떨어진 규암이 파도의 쉬임없는 작용에 의하여 닳아져 나중에는 둥글고 매끈하며 크고작은 닭알모양의 구석으로 되였다.

흰색 또는 누런흰색을 띤 리원구석은 긴 둥근 모양이다.

이 구석은 마광기나 분쇄기의 뽈로 리용되면서 이름이 났으며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장식품으로도 쓰이고있다.

리원구석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자연구석으로서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본사기자

가치있는 새 교수방법 창조

—각지의 초등 및 중등교육부문에서—

공화국에서 초등 및 중등교육부문의 교수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전국의 수재양성기지들과 여러 시, 군의 학교들에서 현대교육기술,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인식능력, 창조적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수십건의 가치있는 교수방법들이 창안되였다.

평양제1중학교, 회상제1중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에서 인공지능기술을 교육실천에 도입함으로써 교수방법개선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보통강구역 세거리고급중학교, 사리원시 신양초급중학교 등에서는 가상 및 증강현실기술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창조력, 응용능력을 계발시키는데 효과적인 탐구식교수방법들을 완성하였다.

소학교학생들의 심리에 맞게 학습에 대한 흥미를 적극 불러일으킬수 있는 기발하고 독특한 교수방법들을 창조한 중구역 창전소학교, 만경대구역 광복소학교 교원들의 성과도 자랑할만하다.

북청군 룡전기술고급중학교를 비롯한 각지 기술고급중학교들에서는 학생들에게 생산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직업기술을 습득시켜 그들을 실천형,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워내기 위한 교수방법창조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고있다.

전국의 수많은 학교와 유치원들에서 학년별, 학과목별, 수업별에 따르는 수천건의 교육용다매체편집물들을 만들어 교육사업에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있다.

본사기자

대동강구역 동문소학교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수인목판화기법

8세기이전부터 창조되여 오늘까지 전해져오는 수인목판화기법은 우리 민족의 미술발전에 뚜렷이 기여한 우수한 판화기법이다.

수인목판화는 수성안료를 리용하여 나무로 된 찍음판으로 찍어내는 판화의 한 형식이다.

조선화의 형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수인목판화는 색이 맑고 부드럽게 느껴지며 전체 화면이 정갈하고 산뜻한 감을 준다.

수인목판화기법은 바로 이러한 수인목판화를 위한 원화그리기, 새김과 찍음방법, 기교, 기량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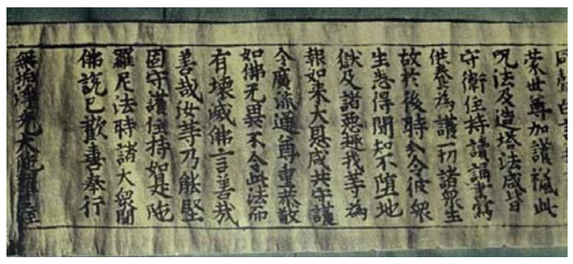
《무구정광대다라니경》(751년), 《백만다라니경》(764년) 등은 세계적으로 가장 이른시기의 수인목판인쇄물이다.

수인목판화도 다른 판화들과 마찬가지로 원화를 그린 다음 그것을 찍음판에 새겨 찍어내는 방법으로 형상한다.

이 과정에 수인목판화의 고유한 조형적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기법이 적용된다.

오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수인목판화는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섬세한 미적감정과 민족적감정을 불러일으켜주고 문화적소양을 높여준다.

본사기자


《무구정광대다라니경》

8월의 절기와 민속

8월의 절기에는 립추와 처서가 있다.

립추는 가을이 시작된다는 뜻이며 처서는 여름더위가 가셔지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 시기는 찌는듯한 무더위가 가셔지기 시작하고 서늘한 바람이 불며 농작물 등이 무르익는 시기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에 돌피잡이를 하거나 새나 짐승의 피해를 막을 목적으로 논판에 허수아비를 세웠고 다음해농사를 위해 풀베기도 진행하였다.

그런가 하면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김장용남새를 심고 가꾸는 일도 매우 중요시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다양한 민속무용과 민속놀이를 즐겨하였다.

대표적인 춤으로서는 어깨춤과 손벽춤, 두레놀이북춤을 들수 있다.

이 시기 진놀이와 기마전놀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민속놀이도 널리 진행되였다.

진놀이는 상대편의 진을 어느 편이 먼저 점령하는가를 겨루는 놀이이고 기마전놀이는 기마수로 선정된 한명의 아이를 여러명의 아이들이 받쳐올리고 상대편의 기마수를 공격하는 놀이로서 아이들속에서 즐겨 벌어졌다.

우리 선조들은 8월절기의 계절적특성에 어울리는 수단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식생활을 다채롭게 진행하였다.

수단은 찹쌀 또는 백미, 찰수수가루 등을 반죽하여 밤알만하게 빚어 끓는물에 삶아 건져서 찬물에 씻은 다음 물기를 없애고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담그어먹는 음식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먼 옛날부터 8월절기의 계절적특성에 맞게 근면하면서도 다양한 생활풍습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이어왔다.

올해의 립추는 8월 7일이며 처서는 8월 23일이다.

본사기자

갈증을 더는데 좋은 음료 몇가지

의학자들이 갈증을 더는데 좋은 음료들을 소개하였다.

— 물

갈증을 더는데 제일 좋은 음료는 물이다. 물을 마실 때 단숨에 들이키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것이 좋다.

식사료법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더운물을 하루에 여러번 마셔야 한다고 한다. 사람에게 필요한 수분을 보충하려면 몸무게 1kg당 30㎖의 물을 마셔야 한다. 무더운 날에는 물량을 10% 더 늘일수 있다.

— 연한 소금물

의학자들은 무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 량의 소금기를 잃게 된다고 경고하고있다.

이것은 사람의 몸안에서 여러가지 장애를 초래할수 있다. 잃어진 소금기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연한 소금물을 마셔야 한다.

— 젖산음료

의학자들은 젖산음료가 땀을 많이 흘릴 때 파괴되는 몸안의 물질대사균형을 회복시킨다고 밝혔다.

— 록차

사탕대신 뚝감자즙과 생신한 박하를 넣고 우려낸 록차를 마신다. 록차는 맛이 향기로울뿐 아니라 비타민과 광물질도 많이 함유하고있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하늘보고 손가락질한다.

① 겨루어볼나위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감히 상대자에 대하여 턱에 닿지 않는 수작을 하는것을 이르는 말.

② 일정하게 애를 쓰기는 하나 그럴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이루어질수 없는 공연한짓임을 비겨 이르는 말.

❖ 화약을 지고 불속에 들어간다.

불에 닿기만 하면 순식간에 당겨 터지는 화약을 지고 불속에 들어간다는 뜻으로서 위험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스스로 위험한 곳을 찾아가는것을 두고 비겨 이르는 말.

❖ 바위를 차면 제 발부리만 아프다.

함부로 화풀이를 하거나 쓸데없이 성을 내면 결국 자기에게 해만 돌아온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웃음 무게는 같다

한 시골로인이 도시의 식당에 들려 생선국을 청했다.

그런데 음식을 받고나서 기분이 상했다. 그는 접대원을 불렀다.

《이보게, 저사람 국그릇엔 생선토막이 두개인데 난 왜 한토막이요?》

《아이, 두토막내지 않아 그렇지 무게는 같아요.》

사화

마지막발명품 (3)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관노의 신분으로 꿈에도 상상할수 없었던 관직을 받은 영실은 마음속으로 소리없는 울음을 울었다.

관직이 고마운것이 아니라 이름없는 쟁인바치에 지나지 않는 저를 믿어주는 임금의 처사가 고마워서였다.

(상감마마, 이 영실은 한생이 다하도록 상감마마의 뜻을 받들겠소이다. 한생토록 의리를 저버리지 않겠소이다.)

그날 장영실은 마음속으로 이같이 부르짖으며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세종왕과 운명적으로 결부된 장영실의 한양대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였다.

그는 잠도 잊고 때식도 건느면서 밤과 낮이 따로없이 미친 사람처럼 여러가지 일들을 재치있게 해나갔다.

동래관가에 매여 일할 때보다 보고 읽고 듣는것이 많은데다가 여러가지 귀한 자재들도 얻을수가 있으니 좁은 그릇속에서 헤염치던 물고기가 큰 바다에 나간것과 같았다.

영실은 피곤도 싫증도 몰랐으며 모든 잡념을 다 잊고 오직 과학탐구와 기술련마에만 정열을 바치였다.

세종14년인 1432년에는 서운관과 경복궁에 천문관측기구를 만들어 설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였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서운관을 확장하고 간의대를 건설하여야 하였다. 장영실을 비롯한 서운관의 기술자들은 간의대 구조설계를 맡아 작성하는 한편 건설공사를 정력적으로 지도하여나갔다.

천문학관측기구를 설치하는데서 가장 절박한 과제의 하나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기구를 만드는것이였다.

천문기상관측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나라의 사회경제생활전반에서도 시간측정은 무시할수 없는 문제였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것인가?

누구에게 맡겨야 성공할수 있겠는가?

공조와 집현전의 관리들과 서운관, 상의원 등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속에서는 이런 론의가 자주 벌어졌다.

그때마다 론의는 장영실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시계와 같은 정밀한 기계를 만들수 없으리라는데로 기울어지군 하였다.

이때 공조참판 리천은 시계제작을 장영실에게 맡겨줄것을 제의하여 임금의 승인을 얻어냈다.

영실은 이 어려운 과업을 기어이 해내리라 굳게 결심하고 일에 착수하였다.

기계기술이 발달되지 못했던 그 시기에 시계제작은 최첨단기술의 하나로서 정밀한 수학적계산을 떠나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일로 인정되여있었다.

하지만 영실은 이 일을 해낼 자신이 있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욕망이 아니였다.

그런 확신을 가질만큼 발전한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이 있었던것이다.

당시의 과학기술의 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실례의 하나로 《칠정산》이라는 천문력법책(8권)을 들수 있다.

내편과 외편으로 구성된 이 책의 내편에서는 우리 나라의 천문현상을 고찰하고 합리적인 력서편찬방법과 리론을 체계화하였으며 외편에서는 아라비아의 력법이였던 회회력법을 참고로 하여 천문리론을 서술하였다.

《칠정산》에는 여러가지 천문계산에 필요한 상수들과 수표들, 계산방법들이 제시되고 해와 달의 운동, 일식, 월식의 예보, 행성의 운동법칙이 밝혀져있다.

이 책에서 계산한 한달의 길이는 29.530593일로서 오늘의 값인 29.530588일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지구가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운동을 하는데로부터 생기는 세차현상의 값(51초)도 오늘의 값(50.2초)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천문학, 수학, 물리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정도를 말해주는 증거로 된다.

장영실은 바로 이 발전된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자동물시계창제를 확신성있게 맡아나설수 있었던것이다.

물론 시계창제라는 새로운 기술분야를 개척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장치들을 하나하나 세밀한 과학적계산에 기초하여 설계하고 제작하여야 하였다.

김빈이라는 기술자를 비롯한 몇명의 보조자들이 도와주기는 하였지만 거의 모든것을 그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계산하고 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자동물시계를 만든다는 놀라운 소문이 널리 퍼지자 집현전의 여러 학자관리들이 거의 매일과 같이 장영실의 일터에 찾아왔다.

영실은 한쪽구석에 자그마한 침상을 꾸려놓고 거기서 새우잠을 자면서 일하였다.

그리고 지우고 다시 그린 수백장에 달하는 크고작은 설계도면들, 까맣게 글자투성이가 된 계산종이들, 나무를 깎아 만든 복잡한 도형들…

그 어느것이나 다 그의 탐구와 노력, 땀과 넋의 산물이였다.

또한 다른 사람은 대신 만들수도 없고 리해하기도 어려운 귀중한것들이였다.

종이 한장을 잘못 건드려 놓은탓에 며칠간의 노력이 허사로 될수도 있었다.

집현전학자들은 영실의 일터에 와서도 문결에서 기웃거릴뿐 감히 안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건드려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하루는 세종이 리천을 앞세우고 장영실의 일터에 찾아왔다. 그곳은 임금이 다닐만한 장소가 아니여도 세종은 그런것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문앞에 이르러 안을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영실은 아무런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고 노전을 깐 바닥에 엎드려 무엇인가 열심히 계산하고있었다.

붓끝의 먹이 말라 글을 쓰지 못하게 되니 벼루우에 팔을 뻗치기도 성가신듯 침으로 붓끝을 추겨가며 쓰고 지우고 다시 쓰기에 여념이 없었다.

리천은 그가 고개를 들기를 기다리다 못하여 안으로 조심히 들어가서 상감님이 친림하였다는것을 귀띔했다.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